



전주매일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피지컬 AI 메카, 새만금과 전북 공동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정동영 통일부장관, 조지훈 전주 시장 당선인, 이광형 KAIST 총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광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국가 피지컬 AI 특별수도 전북’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전북을 대한민국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선언했다.

이 당선인은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피지컬 AI 메카 새만금과 전북 공동발대식'에 참석해 "전북에 피지컬 AI·로봇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전북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피지컬 AI·로봇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등이 주최하고 전북 피지컬 AI 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 피지컬 AI 특별수도 전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원택 당선인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광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조지훈 전주 시장 당선인, 이광형 KAIST 총장, 이연수 NC AI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당선인은 기조발언에서 "세계는 지금 로봇과 기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미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을 선택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새만금을 사벨리로 언급하는 등

서울시 다목적홀서 공동발대식 개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세계적인 피지컬 AI·로봇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

참석자들, "피지컬 AI 산업 최적" 뜻 모아

새만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산업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적 강점을 연결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전주·완주는 AI 신뢰성 혁신 허브와 피지컬 AI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거점 역할을 하고, 군산은 상용 모빌리티와 연계한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은 현대차 로봇 파운드리와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미래산업의 핵심 무대가 되고, 익산은 국가식품플러스터 기반 푸드테크, 김제는 농업로봇과 농건설계기 실증 분야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피지컬 AI와 로봇산업 발전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북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다담돌이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선점하는 초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도 전북이 피지컬 AI 산업의 최적지라는 데 뜻을 모았다.

광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은 "전북은 제조 기반과 산업 인프라,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력 환경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실증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전북은 국내 최초로 피지컬 AI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산업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통해 전북이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전북의 미래 가치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며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전북 소재 피지컬 AI 기업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리얼레이아웃이 강현신 대표는 "전북은 실증과 사업화, 제조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드문 지역"이라며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원택 당선인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오는 8월까지 LG전자, SK 텔레콤, 네이버, NC AI,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피지컬 AI·로봇 분야 핵심 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전북은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의 새로운 성공시대를 만들어 낼 준비가 돼 있다"며 "기업의 기술과 비전, 미래가 전북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토·일요일신문 쉽다

여름철 도로 재해 '제로화'

도, 지하차도 5cm 침수 시 즉시 통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2026년 여름철 도로분야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수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해 및 도로 파손 제로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도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인명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4월까지 지방도 공사 현장 7곳과 교량 525개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탈면 안전 점검과 배수시설 정비 강화하는 한편,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트홀 보수와 도로 측구·배수로 58개소, 도로표지판 14개소, 도로안전시설 43개소, 교량 13개소에 대한 긴급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도 노면에 쌓인 쓰레기 775톤을 수거하는 등 도민들의 통행 안전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내 23개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수위가 5cm에 도달하면 즉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침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에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 '선 통제,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지하차도별로 시·군과 읍·면·동 경찰 민간 관계자가 참여하는 4인 담당자 체계를 운영해 현장 통제와 상황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읍 수성지하차도와 정읍역 지하차도는 현재 진입 차단시설 설치 진행 중이며, 도는 조속한 설치를 통해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급경사와 교량 터널, 압거,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 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즉각적인 정비가 어려운 시설에는 비닐피복과 마대 쌓기, 가배수로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 기상 특보 발효 시 상황변을 즉시 가동하고, 재난 상황이 심각 단계에 이르르면 부서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에 투입돼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2027 QS 세계대학평가서 순위 '급상승'

9개 평가 지표 중 6개 점수 상승... 연구 질·국제화 등 고른 개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8일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주요 지표 전반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북대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23위, 국가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세계 순위도 전년 대비 27계단 급상승해 677위에 랭크됐다. 특히 9개 평가 지표 가운데 6개 지표 점수가 상승하며 연구, 교육, 국제화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연구의 질, 고용 가능성, 교육여건, 국제화, 지속가능성 등 5개 영역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하는 데

표적 지표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연구 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수당 논문 피인용 지표가 상승하며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취업성과, 학생당 교원 비율, 외국인 교원 비율, 지속가능성 지표도 동반 상승하며 교육과 대학 운영 전반의 경쟁력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학생 비율은 전년 대비 12.1점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대학300 사업을 기반으로 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등 전략적 국제화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김재훈 기자

